

“환아들에게 희망 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김왕석 강진군청 주무관

헌혈증 111매 모아 전남대병원 기탁
고교 시절 친구 투병 계기 헌혈 지속
SNS로 동참 이끌어...5년간 573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는데, 우리 지역 환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김왕석(45) 강진군청 주무관이 올해도 전남대학교병원을 찾아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사투를 벌이는 아이들을 위한 헌혈증 111매를 기탁했다. 김 주무관은 2021년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처음 전남대병원과 인연을 맺은 이후 5년간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행동동 2층 집결실에서 정신 원장, 심층서 사무국장, 한재영 대외협력실장, 윤현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최옥자



김왕석(오른쪽) 강진군청 주무관이 올해도 전남대학교병원을 찾아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사투를 벌이는 아이들을 위한 헌혈증 111매를 기탁했다. 사진은 최근 병원에서 열린 전달식에서의 정신 병원장과 김 주무관. <전남대학교병원 제공>

간호부장 등 병원 보직자와 초록우산 광주지역 본부를 비롯해 김왕석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헌혈증 전달식을 가졌다.

김 주무관은 20여년 전인 고교 시절 백혈병을 앓던 친구를 돕기 위해 처음 헌혈을 했으며, 이후 20회가 넘는 헌혈을 지속하며 ‘헌혈왕’의 반열에 올랐다.

뿐만 아니다. 김 주무관은 SNS를 통해 전국 각지의 지인과 이름 모를 이들에게 헌혈증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그렇게 모인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 전남대병원에 기탁한 헌혈증이 어느덧 573매에 달한다. 이는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수혈 비용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왕석 주무관은 “헌혈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이 100번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100명이 한 번씩 함께해주는 힘이 더 크다”며 “나 한 번의 참여가 수술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주무관은 전달식에 자녀들과 함께하며 ‘살아있는 교육’을 실천해왔다. 그는 “봉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분들보다,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가족이 얻는 행복과 에너지가 더 크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전남대병원의 든든한 동반자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정신전남대병원장은 “김 주무관님의 헌혈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가장 따뜻한 응원”이라며 “573매의 헌혈증에 담긴 숭고한 뜻을 받들어 환자들의 완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 주무관은 헌혈 외에도 다문화 가정 돌잔치 지원, 차상위 계층 주거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그늘진 곳을 살피는 ‘팔방미인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기수희기자

이순형 동신대 교수 ‘햇빛·바람소득 특별위원’ 위촉



동신대학교는 11일 “이순형(사진) 전기공학과 교수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산하 ‘햇빛·바람소득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국가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주요 추진 과제를 심의하는 핵심 정책기구다.

이 가운데 ‘햇빛·바람소득 특별위원회’는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전력 생산 수단인 아닌 지역 주민이 수익을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만드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 확산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달 28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균형발전 ▲농어촌 활력 회복 ▲에너지 전환 정책 등과 관련한 자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순형 교수는 “햇빛과 바람은 지역이 가진 소중한 미래 자산이며, 이를 주민 소득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력계통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햇빛소득마을과 바람소득마을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국제기자연맹 집행위원’ 선출



박종현(사진)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국제기자연맹(IFJ)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11일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FJ 창립 100주년 기념 세계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된 16명의 집행위원단에 포함됐다. 임기는 2029년까지 3년이다.

신임 회장으로는 페루 언론인 솔리아나 라이네스 오데로가 선출됐으며, 부회장은 나세르 아부 바크르(팔레스타인)·제니퍼 모로(캐나다)·지예다 다바르(튀니지)가 이름을 올렸다.

IFJ는 1926년 창립된 언론인 단체로, 현재 146개국, 60만명 이상의 언론인이 가입해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6년 IFJ의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IFJ 집행위원회는 IFJ의 실질적 운영과 국제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선출직 기구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자 안전 강화, 인공지능(AI) 시대 언론 대응, 여성 언론인 지원, 국제 언론 교류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수희기자



전남청 가거경비대, 아동들에 ‘추억 선사’

전남경찰청 가거경비대는 가정의 달을 맞아 11일 가거도 거주 아동들을 대상으로 ‘꿈을 지키는 우리 경비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서 지역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9명은 경비대 시설 견학과 함께 실제 경찰 장비를 관람하고 기동차량을 직접 타보는 체험을 했다.

이 외에도 경비대는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진 포돌이·포순이 인형과 간식 꾸러미를 선물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평소 부대 밖에서 눈으로만 보던 경찰차를 직접 타고보고 이름이 적힌 인형까지 선물 받아 최고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요관 가거경비대장은 “도서 지역 학생들이 환경적 제약 없이 밝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GIST, 가상현실 속 무게·관성 ‘실제’처럼 구현

김승준 AI융합학과 교수 연구팀
손가락 착용형 햅틱 시스템 개발
차세대 XR 인터페이스 기술 기대



왼쪽부터 신세무 석사, 김광빈 박사과정생, 강성준 박사과정생, 김승준 교수, 박정주 석사, 오민석 석사, 김민준 석사, 김민준 석사, 김민준 석사. (GIST 제공)

가상현실(VR) 속 다양한 도구의 무게감과 휘두르는 느낌을 실제처럼 구현할 수 있는 손가락 착용형 햅틱 시스템(Finger-Mounted Extending Rod)이 개발됐다.

11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에 따르면 김승준 AI융합학과 교수 연구팀은 손가락에 착용하는 소형 장치를 활용해 가상 도구의 물리적 특성을 정교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했다.

VR 기술은 시각적 표현 측면에서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사용자가 가상 물체를 실제처럼

‘손에 쥐고 다루는 감각’을 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물리적 변화를 가상 환경 속 도구의 움직임과 실시간으로 연동해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장면과 손으로 느끼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일치하도록 설계했다.

이번 연구는 사용자의 손과 손가락 자체를 인터페이스의 일부로 활용해 가상 물체를 단순히 ‘보는 경험’에서 실제처럼 ‘다루는 경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게임 분야에서는 조작감과 몰입감을 높이고, 교육·훈련·원격 작업 환경에서는 실제와 유사한 물리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나아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줄이는 차세대 XR 인터페이스 기술로 기대된다.

김승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손가락에 착용하는 작은 장치만으로도 가상 객체의 무게감과 관성 같은 물리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김승준 교수가 지도하고 강성준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해당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지원사업 및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박선욱기자



광주환경공단, 전남대 학생 진로 프로그램 운영

광주환경공단은 “최근 전남대 환경공학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청년, 환경과 진로를 JOB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사는 광주환경공단 대회의실과 제1하수처리장에서 ▲공단 소개 및 취업 정보 안내 ▲환경 교육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 ▲현직자 그룹 멘토링 ▲SNS 이벤트 ‘취준진담’ 등으로 이뤄졌다.

SNS 이벤트 ‘취준진담’은 행사 참가 학생들이

취업 준비와 관련한 내용을 ‘환·경·공·단’ 등을 활용한 이형시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단은 우수작을 선정해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시민 투표를 통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 청년들에게 환경 분야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전남도-공인중개사협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협약

전남도는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와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업무협약을 하고 도민 주거 편의 향상과 생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상세주소는 원룸·다구주택 등에서 세대별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동·층·호’ 정보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상세주소가 없어 발생했던 택배·우편물 분실, 고지서 미수령에 따른 불편 등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확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소유자와 임차인을 직

접 대면하는 공인중개사의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세주소 부여를 적극 안내해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상세주소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신청을 권고하는 등 현장 홍보 창구 역할을 맡는다. 전남도는 협회 회원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내하도록 홍보자료 제공 등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전문성과 전남도의 행정 지원이 결합하면 상세주소 부여 확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북구가족센터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

광주북구가족센터는 “최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피라컨벤션에서 열린 ‘2026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가족정책 유공 기관 부문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 가정의 달 기념식은 성평등가족부가 ‘따뜻한 동행,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주제로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고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북구가족센터는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지역 사회 중심 가족복지 실천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노효경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찬웅기자

화순전남대병원, 어버이날 카네이션 전달 행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입원 환자와 외래 방문객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카네이션, 위로의 손길’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완식 병원장과 이정희 간호부장 등의 의료진이 참여해 외병동을 비롯한 각 병동을 찾아 70세 이상 입원 환자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쾌유를 응원했다. /기수희기자

